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2023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요약) - 유럽

베를린시 - 위기에도 최상의 상태인 베를린

파리시 -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한 해

피렌체시 - 관광 수입에 덜 의존하는 피렌체 시민의 도시 만들 것

밀라노시 - 지속 가능한 분산화로 도심에 덜 의존하는 도시 만들 것

로테르담시 - 서로 돌보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야

암스테르담시 - 자라나는 세대가 꿈 이룰 수 있는 민주 사회로 도약해야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	정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정연주	

위기에도 최상의 상태인 베를린

독일 베를린시 / 프란치스카 기파이 시장 / 신년사

독일 베를린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시장은 여러 위기 상황에도 베를린의 경제 지표가 밝다는 긍정적 소식과 더불어, 어린이를 위한 평등한 교육 기회와 저렴한 주택 공급, 난민을 위한 연대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언급해 베를린이 모두를 위한 사회적 도시임을 강조

베를린의 미래세대를 위한 “평등한 기회, 좋은 교육, 사회 정의”

- 2022년 베를린에 3만 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났으며, 5,000개 이상의 새로운 어린이 집과 8,000개 이상의 새로운 학교가 설립됨. 베를린 행정부는 매년 1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여 학교 건설을 계속 추진 중. 시장은 “우리 도시의 모든 어린이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하고, 평등한 기회, 좋은 교육, 사회 정의를 위해 시장과 행정부와 12개의 지역구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저렴한 주택 공급

- 2022년 베를린에는 주택 1만 6,500채가 새로 지어짐.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지어진 수보다 많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 시장은 “베를린은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적 도시로 남아 있어야 하고, 경제가 강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며, 더불어 저렴하고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하며 다양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전함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연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유럽에서 전쟁에 벌어지자 우크라이나 난민이 베를린으로 유입됨. 베를린 시민은 기차역에서부터 이들을 환영하고 음식과 의류를 기부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등 인류애를 보임. 이에 시장은 베를린이 “(난민에게) 두 팔을 벌리는 열린 마음을 가진 도시”라며 모든 구호 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연대에 감사를 표함

2023년 지방선거 재선거

- 2021년 9월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선거 관리 부실(선거구별 투표용지 바뀜, 무효표 속출 등)이 드러나 헌법재판소가 재선거 결정 내림. 시장은 임기 전에 발생한 문제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하며, 베를린 행정부와 새로운 주 선거 관리 위원장이 2023년 2월 12일 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한편 2023년 2월 지방선거에서는 기독교민주당(CDU)이 승리하고, 올라프 솔츠 총리와 베를린 기파이 시장이 소속된 사회민주당(SPD)이 패함

코로나 상황 속 긍정적 경제 지표

- 2022년 베를린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많은 새로운 기업이 자리를 잡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큰 경제적 성과를 보임. 그 외에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시 베를린을 찾아 베를린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도시의 매력을 잃지 않았음을 증명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 시장은 겨울 동안 에너지 공급이 모든 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을 보장.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영향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를린 구호 패키지를 공급. 더불어 2022년부터 베를린 대중교통 티켓을 월 29유로에 제공

베를린 시민에게 전하는 인사

- 베를린 시민, 특히 병원과 요양 시설 직원, 소방대 및 경찰, 환경미화원, 대중교통 노동자 등 도시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의 연대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표함. 정치계,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 도시의 힘을 믿으며, 함께 베를린을 만들어 나가고 함께 성공할 것이라 확신함

<https://www.berlin.de/aktuelles/7952004-958090-giffey-zu-neujahr-berlin-laeuft-in-krise.html>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2/pressemitteilung.1279328.php>

<https://www.wahlen-berlin.de/wahlen/BE2023/AFSPRAES/agh/index.html>

홍남명 통신원, hongnamyoung@gmail.com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한 해

프랑스 파리지 / 안 이달고 시장 / 신년사

파리시는 시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녹지 형성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대비하는 환경정비 및 신설하는 문화시설과 나눔센터를 통해 도시연대 정책 강조

파리시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은 신년사에서 팬데믹이 끝난 기쁨과 축하를 나누고, 지난해의 다양한 정책 성과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올해의 도시정책 발표

- 기후 정책 우선 지역 선정하여 도보거리와 녹지대 확충
 - 2023년은 생물기상학 도시계획(PLU bioclimatique)과 2024-2030 새로운 기후 계획(Plan climat)이 적용되는 해
 -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선으로 적용되는 지역 및 광장, 거리, 학교 명단 발표
 - 2022년에는 파리 외곽 순환도로에 1만 8,000그루, 숲에 1만 2,000그루, 시 거리와 공원에 8,000그루의 나무를 심음
 - 2023년에는 5구 퐁토와즈, 6구 리트레, 12구 부통, 18구 필립 드 지라르, 19구 람팔, 20구 르보 거리 등 새로운 학교 주변 도보거리를 만들 계획
 - 비비엔 거리와 생 제르맹 섬에 공원 7개 신설, 오아시스 정원(cours Oasis)¹⁾ 30개 신설, 18구에 작은 산책로(petite ceinture) 3개 구간 조성 등 약 5만㎡의 녹지 조성
 - 20구의 샤론느 역 공원과 뱅센 오아시스 정원 사이의 오래된 화물역 부지에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14구 카탈루냐 광장에는 도시 숲이 2023년에 문을 열 예정
 - 공공시설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 15개 설치 예정
 - 파리 중심부 자동차 감소를 위해 교통 제한 구역(Zone à trafic limité, ZTL) 지정
 - 파리 거리 교통법 제정을 전제로 보행자와 자전거, 배달차, 킥보드, 자동차 이용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월 말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가 모여 회의 진행

1) 오아시스 정원은 '신선한 공기섬'을 만드는 것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를 더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4월 초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올해 9월부터 공유 업체들이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결정

○ 2024년 올림픽을 대비한 도시 미화 공사 계획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콩코드 광장에서 에또알 광장까지의 샹젤리제 거리 도시 미화 공사 진행
-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 공사
- 뽀프 드 라 샤펔 지역의 가로수 및 보도 확장 공사
- 트로카데로 지역과 이에나 다리 주변의 도보길 확충 및 녹지화 사업

○ 공공주택의 대규모 공급 계획

- 중산층 가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공을 목표로 현재 사무실을 주거지로 개축하거나 아예 공공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진행 중. 앞으로 약 3,500개 공공주택 공급 예정
- 2023년까지 파리지 주택의 40%를 사회 주거(logements sociaux)를 포함한 공공주택으로 바꾸는 계획(Horizon 2035) 중의 하나로 7구의 생 제르망 섬 지역에 있는 옛 국방부 사무실 건물들을 254개 사회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개축 공사 예정.
- 8,000개 학생 주택이 올해 제공될 예정
-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을 위해 5,000개 사회 주거가 올해 개축 공사 중이며, 이를 포함해 2026년까지 총 2만 2,500개 개인 주택 개축 예정

○ 버스 노선 민영화 중단

- 대중교통 이용자 수의 감소로 적자 운행 중인 파리 일 드 프랑스 교통공사(RATP)의 버스 노선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시장이 계획 중단을 요청함

○ 문화시설 확충

- 19구 제임스 볼드윈 미디어센터와 14구 몽수리 농장, 7구 겐즈부르그 저택 등이 2023년에 새롭게 문을 열
- 자코메티 박물관 공사가 앵발리드에서 진행 중이며, 로렌스 드 마갈헤스와 스테판 리코르텔의 론도 포인트 극장 등이 개장할 예정
- 현대 미술관의 니콜라 스타엘 전시와 브띠 팔레에서 사라 베른하르트 전시 계획, 특히 사라 베른하르트로 이름이 바뀐 부르델 박물관과 시립 극장은 100년 만에 올해 재개장
- 8구의 마들렌 성당, 13구 노트르담 역, 생 루이 성당, 생 페스타쉬 성당과 라 빌레트 루터교 성당, 18구 생 장 드 몽마르트르 성당들의 복원공사 진행 중

○ 사회경제 및 연대를 위한 센터 개장

- 20구에 안 팔린 식품들을 재가공해 나누는 세르플레 나눔활동 센터(hôtel d'activités

Serpollet)가 올해 봄에 개관 예정이며, 13구에는 옷가지들을 나누는 베르리에 나눔센터(hôtel Berlier)가 개관

○ 파리 국립 학교의 교사 수 확보

-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자리가 줄어들 위기였으나, 시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교사 수를 보전할 예정

○ 파리지 의료 시스템 감사 위원회 신설

- 파리 시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우려에 따라 시의 감찰직, 시의원, 주민, 의료 전문가와 공공의료 및 파리 시립병원(AP-HP) 감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



[그림 1]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신년 계획 발표

<https://www.lejournaldugrandparis.fr/voeux-2023-lenergie-retrouvee-danne-hidalgo/>

<https://www.paris.fr/pages/anne-hidalgo-presente-ses-voeux-pour-2023-22844mailto:?subject=Paris.fr%20-%20Anne%20Hidalgo%20pr%C3%A9sente%20ses%20v%C5%93ux%20pour%202023&body=Anne%20Hidalgo%20pr%C3%A9sente%20ses%20v%C5%93ux%20pour%202023%0D%0A%C3%80%20l'occasion%20du%20passage%20C3%A0%20la%20nouvelle%20ann%C3%A9e,%20la%20maire%20de%20Paris%20Anne%20Hidalgo%20pr%C3%A9sente%20en%20vid%C3%A9o%20ses%20v%C5%93ux%20C3%A0%20toutes%20les%20Parisiennes%20et%20tous%20les%20Parisiens.%0D%0Ahttps%3A%2F%2Fwww.paris.fr%2Fpages%2Fanne-hidalgo-presente-ses-voeux-pour-2023-22844>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

관광 수입에 덜 의존하는 피렌체 시민의 도시 만들 것

이탈리아 피렌체시 / 다리오 나르델라 시장 / 신년사

2023년을 시작하며 피렌체시 다리오 나르델라(Dario Nardella) 시장은 ‘0 호텔, 15분 내 도시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 계획 발표. 이탈리아 최초로 도시 역사지구 내에 관광객 위한 호텔 건설을 금지하고 역사지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것.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도 구체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모든 인프라는 관광객이 아닌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선언

피렌체는 시민을 위한 도시

- 피렌체시는 매년 평균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서 큰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문제에 직면한 상황
 - 올해도 나르델라 시장은 늘어나는 관광객 때문에 피렌체 시민의 일상생활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 큰 중요성을 둠
- ‘제로 호텔’
 - 늘어나는 관광객 숫자에 따라 역사지구 내 호텔 수 매년 증가
 - 이탈리아 도시 최초로 역사지구 내 새로운 호텔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제정
 -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을 호텔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여 피렌체의 역사적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역사지구 내 관광객 유입을 줄임으로써 시민의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의도
 - 확장되는 에어비엔비 트렌드에도 부정적
 - 올해부터 가정집을 여행객 숙소로 변경하는 행위 절대 금지
 - 일반 가정집을 변경하여 에어비엔비 등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활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월세 가격이 터무니 없이 상승하고 제한된 공간에 관광객 유입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음. 피렌체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함
 - 동시에 관광객 유입이 적은 도시 외곽에는 관광객 숙소 만들기 적극 지원
 - 피렌체 외곽의 수많은 농장에서는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아그리캠핑(Agriculture+Camping) 지원, 피렌체시에서 직접 제작한 푼말과 안내판 제공 및 다양한 지원 방법 모색
 - 관광도시로서 도시 내 지역 간 균형을 맞추려는 시의 노력

○ ‘15분 내 도시 서비스’

- 역사지구 내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금지하고 그 공간을 재정비하여 시민을 위한 상점, 공공기관, 서비스 공간 등으로 탈바꿈 계획
 - 역사지구 내에 관광객을 위한 대형 슈퍼마켓 오픈 금지. 시민이 이용하는 작은 상점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
 - 도시를 보존하고자 가정집 1층을 관광객 위한 상점으로 변경하는 행위 금지
 - 15분 안에 시민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15분 내 도시 서비스는 피렌체시가 정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 고립되는 사람 없이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의 노력

계획한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 구체화

○ 고속 열차역 신설

- 피렌체는 중앙역에서 고속 열차와 저속 열차 모두 운행 중. 장거리 이동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고속 열차만을 운행하는 역을 신설할 계획

○ 피렌체 시내에 새로운 스타디움 건설

- 필요 예산 1억 9,000만 유로(약 2,700억 원)를 확보하여 올해 건설 시작. 2026년 완공 목표

○ 공항

- 토스카나주에는 국제선 중심의 피사 공항(Pisa)과 유럽 내 항공 중심의 피렌체 공항 등 두 공항이 존재. 2023년은 피렌체 공항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축소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결정하는 한 해가 될 것

○ 트램

- 시민이 자동차 없이 편안하게 도시를 이동할 수 있도록, 피렌체 역사지구 밖으로만 연결된 트램을 역사지구 안의 상징적인 장소인 마르코광장까지 연결시킬 계획

○ 도시 인프라 건설로 앞으로 약 6년 동안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https://www.comune.fi.it/comunicati-stampa/piano-operativo-e-piano-strutturale-2023-libera-del-consiglio-comunale>

<https://www.055firenze.it/art/218261/Le-tappe-del-nuovo-Franchi-Nardella-Lavori-fine-2023>

<https://www.firenzetoday.it/cronaca/piano-operativo-2023-stop-alberghi-limiti-airbnb.html>

<https://www.stamptoscana.it/nardella-il-2023-anno-della-concretezza-per-firenze/>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지속 가능한 분산화로 도시에 덜 의존하는 도시 만들 것

이탈리아 밀라노시 / 주세페 살라 시장 / 신년사

밀라노시의 2023년은 우리가 알던 도시 이미지가 바뀌는 한 해가 될 것.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정책을 통해 밀라노 도시 중앙에 밀집되어 있던 서비스들을 차근차근 분산화시킬 예정. 모든 밀라노 시민이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

교통

- 지하철 노선 개통 혹은 확장
 - 6월 새로운 지하철 개통을 완공해 밀라노 국제 공항에서 도시 역사지구까지 14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 노선을 확장하여 시내 외곽 거주 밀집 지역까지 도달
 - 머무는 지역에 상관없이 시민이 도심과 외곽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80개의 전기차 버스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
- 자전거 도로
 - 도시 외곽에서 역사지구로 통하는 메인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 예정
 - 가장 혼잡한 도로의 자전거 도로를 보수 공사

문화

- 유럽 문화 정보 도서관 건설
 - 1억 유로(약 1,400억 원) 예산 확보하여 프로젝트 시작
- 새로운 문화 공간 신설
 - 예술가와 공연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수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도시 외곽에 건설. 밀라노 역사지구의 유서 깊은 20세기 박물관(Museo del Novecento)과 함께 밀라노를 대표하는 예술 공간이 될 것.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예술 활동을 상징하는 공간을 기대

올림픽을 위한 준비

-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Milano Cortina 2026) 준비

- 밀라노는 겨울 스포츠로 유명한 옆 도시 코르티나 담페초(Cortina d'Ampezzo)와 함께 동계 올림픽 공동 개최
- 올림픽까지 약 3년이 남은 상황에서 올해는 경기장을 건설 및 보수하고 선수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점검하는 한 해 될 것

민간 기업과의 활발한 협력

- 민간 기업과 제휴하여 밀라노의 국립 박물관 개선 사업, 밀라노 기술대학교 캠퍼스 개선 등 도시 안과 외곽의 주요 광장이나 미술관 보수 예정

공원

- 도시 중심부를 벗어난 거주 밀집 지역 두 곳에 대규모 공원 건설
 - 각각 약 1만 2,000평 규모와 약 4만 평 규모

학교

- 밀라노시의 모든 학교 지붕 보수 공사 및 낡은 시설 개선 공사 진행

<https://www.ilgiorno.it/milano/cronaca/giuseppe-sala-opere-2023-1.8423092>

https://www.leggo.it/italia/milano/milano_sfide_giuseppe_sala_meazza_giochi_invernali_m4-7162190.html?refresh_ce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서로 돌보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야

네덜란드 로테르담시 / 아메드 아부탈레프 시장 / 신년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새해 전야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대교에 인종차별 문구가 영사된 사건 등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임. 아메드 아부탈레프(Ahmed Aboutaleb)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보고 먼저 나서서 선행을 베푸는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강조.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역설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생활고 겪어

- 2022년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한 해였음. 전쟁 둘러싸고 유럽의 단결력을 실감하는 동시에 사회 곳곳에서 그 영향을 체감
 - 로테르담시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음. 난민 보호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모든 시민에게 감사
 - 전쟁 이후 난방비가 가파르게 올라 많은 시민이 에너지 비용과 식료품 장보기 비용을 두고 취사선택해야 하는 상황. 이번 겨울 적지 않은 사람이 경제적 이유로 난방을 끈 채 생활하였음
- 물가 상승으로 직업 있어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어렵고, 더불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기초수급자 외에도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늘고 있다는 신호
 - 도시 정부로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그 전쟁이 우리 일상에 끼치는 영향은 큼
 - 도움 필요한 시민을 돕기 위해 로테르담 시정부는 최선 다할 것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미래

- 수치로만 증명되는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질적 성장이 선도하는 미래, 서로를 돌보는 미래, 공공의료가 전문가와 정부뿐 아니라 모두의 참여로 구현되는 미래를 소망
 - 어려운 상황에 맞서 당장의 필요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것 역시 중요

- 곤궁하지 않은 삶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학위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것은 강인한 국가이자 독립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길
 - 상호무역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리라 믿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보았듯,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지금 구조로는 빈곤과 추위에 맞서기 어려움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 모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에라스무스¹⁾의 도시

- 함께하는 것이 홀로 서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나은 삶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또한 서로에게 이야기해야 함
 - 에라스무스의 유산인 인간성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켜야 함
 -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 형벌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
 -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멋대로 지배하려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교육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
- 인종차별적 사상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 새해 전야를 기념해 열린 불꽃축제 도중 에라스무스 대교에 인종차별 문구가 영사된 사건이 있었음
 - 83년 전 나치에 의해 초토화되었던 로테르담에, 모두가 사랑하는 에라스무스 대교에 혐오로 얼룩진 표현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극우 집단이 주로 활동하는 다크웹을 계속 주시
 - 세계 어느 곳에서 왔든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힘쓸 것

선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먼저 잘 듣는 일상의 리더십 필요

- 혼란한 시기에는 옳은 것을 위해 나서고,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갈등 상황에서 결단의 순간을 피하는 대신 기꺼이 맞서 양쪽을 모두 해결하는 리더십 필요
 -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가게 주인, 학교 선생님 등 모든 시민이 서로에게 중요한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함으로써 일상의 리더십을 보여 줄 수 있음

1) 로테르담 태생의 철학자

<https://www.rotterdam.nl/toespraken-burgemeester>

장한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자라나는 세대가 꿈 이룰 수 있는 민주 사회로 도약해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 펌케 할세마 시장 / 신년사

암스테르담시 펌케 할세마(Femke Halsema) 시장은 도시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지역 차별의 문제를 언급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더 자유롭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약속.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자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 독려

어린이와 청년 세대가 출신 동네 상관없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소망

- 소득과 여가, 기회의 평등에 너무 큰 격차가 도시 내에 산재하며 특히 어느 동네 출신 인지가 개인 행복과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러 문학과와 인기 래퍼 등을 소개하며 그들 작품에 반영된 암스테르담의 빈곤과 차별, 과거 아동 노동착취 등의 문제 제기
 - 그 사이 도시에는 공공도서관 등이 확충되고 더 나은 공공교육 정책이 마련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빈곤 지역 아이들도 암스테르담을 자신의 도시로, 네덜란드를 자신의 나라로 느낄 수 있어야

- 커 갈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각자 세계가 더 커질 수 있는 도시 되기를 소망
 - 구젠벨트(Geuzenveld), 홀렌드레흐트(Holendrecht), 드 반(De Banne) 등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중 평생 그곳을 떠나 본 적 없는 어린이가 많음
 - 그런 의미에서 새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암스테르담이 모든 연령의 시민을 포용하는 도시가 되도록 애쓰는 어린이 시의회와 시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 시의회는 발로 뛰며 도시 곳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 과밀화된 도심과 주거 밀집 지역 재생 위한 마스터플랜, 도시 내 격차 해소 위해 ‘불공평하게’ 집행한 예산안은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었음
 - 극심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꾸준히 신규 주택을 확보하고 에너지 빈곤을 극복하려고 가능한 모든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
 - 자라나는 세대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지속 가능성 의제부터 예술 및 문화 정책, 직업학교 지원, 디지털 도시 계획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

-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에게 더 큰 세계를 보여 주고, 우리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정책적 투자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암스테르담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성 세대의 동료 시민으로서, 또 아름다운 도시를 이끄는 행정가로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함

지역 민주주의와 자치정부 체제를 지켜 모두가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어야

- 자라나는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민주적 가치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함. 열린 대화, 다정하고 평화로운 태도, 소수자에 대한 존중을 지켜야 함
 - 우크라이나 전쟁이 겪고 있는 반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자의 위협 언급하며 네덜란드 사회의 극우주의,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 여성혐오, 음모론 등에 대한 성찰 필요 강조
 - 특권 계층과 시민 계층, 백인과 유색인, 도시와 농촌 지역, 노인과 어린이 등 서로의 차이가 극대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를 타개해야 함
- 차이가 연대를 무력화시킬 때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어린이와 청년세대, 특히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임. 양극화 사회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오갈 때, 미래에 희망을 품고 자라야 하는 어린이의 목소리는 더더욱 대변되기 어려움
 - 암스테르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25세 이하의 젊은 세대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주요 목표
 - 어린이 시장을 비롯한 어린이 의회 일원에게 배우고 봉사함으로써 도시 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
- 어려운 이웃을 돕고 관용 정신을 베풀며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암스테르담 시민에게는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며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이 필요함
 - 불신은 더한 갈등을 초래하고, 이로 말미암은 부정적 결과는 처지가 어려운 시민에게 더 크게 체감됨. 단계적으로 시민 모두에게 신임을 얻는 정부가 될 것
 -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더 아름답고 자유롭고 희망찬 암스테르담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전하며 마무리

<https://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college/burgemeester/speeches/toespraak-nieuwjaarsontvangst-gemeente/>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48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4월 10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